

# 광주·전남 곳곳 한가위 '전통문화 행사' 풍성 우리 가족 박물관서 '민속놀이 데이'

유난히 짧은 추석 연휴. 하지만 "더도말고 덜도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란 말이 있듯이 마음만은 풍성하다. 이번 추석에는 가까운 박물관과 유원지를 찾아 아름다운 풍습과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가족간의 정을 확인해보자. 광주전남 곳곳서 풍성한 한가위 민속놀이와 축제가 펼쳐진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2일부터 4일까지 박물관 뜰에서 '한가위 우리문화 한마당'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에는 어렸을 적 추억을 되살리며 내 손으로 직접 제기 만들기 등 가족과 함께 제기차기, 윷놀이와 굴렁쇠 굴리기 등 전통놀이를 포함, 다양한 체험마당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교육관 대강당에서는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가족영화와 아시아 여러 나라의 국수문화에 대해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를 각각 상영한다. 상영시간은 오전 다큐멘터리는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가족영화는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이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관장 서종환)은 2일부터 사흘간(오전 9시~오후 6시) 박물관 광장에서 윷놀이와 널뛰기, 투호 등 각종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한가위 민속놀이 체험 한마당'을 연다.

각 지역 청년·동창회에서도 노래잔치, 주민한마당잔치 등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추석 명절의 즐거움을 주민과 함께 할 예정이다

금호패밀리랜드는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향객과 지역주민을 위해 추석연휴인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추석연휴 이벤트'를 개최한다.

제기차기와 팽이치기, 투호, 널뛰기 등 전통놀이를 운영하고, 전통놀이 기량을 겨루는 전통 기네스대회가 펼쳐진다.

데블즈 댄싱, 유로 비보이, 아크로바틱 공연과 댄스퍼레이드가 함께하고 3일과 4일에는 고극 즉석 노래자랑, 마술초청 공연, 통



추석연휴를 맞아 광주전남 곳곳서 풍성한 한가위 민속놀이 축제가 펼쳐진다. 사진은 지난해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열린 '한가위 우리문화 한마당'

## 광주박물관·민속박물관·패밀리랜드 등 윷놀이·제기차기 등 다채...웃음꽃 활짝

기타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돼 있다. 이 기간 동안 한복을 입고 입장하는 고객은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열차 무료이용과 자유이용권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전남 지역 곳곳에서도 세시풍속 및 문화 행사, 축제,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여수시에서는 4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한마당 행사가 열리고 구례군에서는 3일 무연고묘를 위한 합동 제사지내기가 치러지

는데 이어 4일에는 구례잔수농악보존회에서 평소 보기 힘든 잔수농악 판굿 공연을 귀성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고흥군에서도 3일 고흥 한적들 노래 공연이 한적마을 광장에서 펼쳐지고 강진군에서는 추석맞이 명품청자 경매행사가 같은 날 오후 청자박물관에서 열린다.

해남군 문내면에서는 2일 울퉁목 강강술래 큰마당이 펼쳐진다. 또 진도군 지산면에서도 3일 오후 강강술래 공연이 펼쳐지며 이

날 강진군 마량면에서는 마량 미향토요음악회가 열리는 등 시·군마다 준비한 마을 노래 자랑과 문화공연이 연휴기간 내내 이어진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신종플루 감염을 우려해 추석 행사를 취소했으며 목포시와 나주·보성·화순·함평군은 올해 추석 행사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추석연휴기간 동안 전남도립국악단의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토요공연과 진도 윤림산방 토요그림경매는 예정대로 치러진다.

담양군에서는 대나무박물관, 가사문학관, 죽녹원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한 무료개방을 통해 지역 홍보 및 모처럼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들에게 고향의 훈훈한 정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추석 차례상 차리기

매번 지내도 헛갈리고 소홀하기 마련인 게 차례다.

'감 놔라 배 놔라'하는 언짢은 도무지 끝날 줄 모른다. 온 가족이 모여 조상의 덕을 기리고 맛있게 음복(飮福·제사 음식을 나눠먹음)을 하면 되지 차례상 음식 놓는 순서가 뭐가 중요하지 대체 모르겠다. 그러나 전통은 지켜야하고 예절은 차려야 하지않겠는가.

추석 차례상은 조상의 보살핌에 감사하는 뜻에서 햅쌀로 송편을 빚어 햅과일과 함께 올린다는 점이 특징이다.

음식을 놓을 때는 열에 맞춰 놓고, 어둡게(魚東肉西·생선은 동쪽, 고기는 서쪽에 놓는 것)·홍동백서(紅東白西·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좌포우례(左脯右醴·왼쪽에 포,

기도 한다. 또 집안에 따라 탕(국)도 빼고, 편(떡)을 제외하기도 한다.

추석차례는 먼저 영신(迎神)으로 대문을 열고 병풍을 치고 신주, 지방 또는 조상의 사진을 모신다. 이어 강신(降神)으로 조상의 영혼을 맞는 의식을 치르는데 제주가 향을 피우면 집사자는 술잔을 주고 제주는 그것을 모사(그릇에다 모래를 담은 것) 위에 세 번 나누어 붓는다.

집사자는 술잔을 받아 제자리에 두고 제주는 두번 절한다. 이어 참신(參神)과정으로 모든 참사자가 일제히 두 번 절한다.

전통 차례상 차리기는 각 지방의 풍습에 따라 융통성이 있지만 공통된 금기사항은 있다.

예부터 훈채(訓菜·독특한 냄새가 나는 채소)식품으로 알려진 파, 마늘,

## 햅쌀로 송편 빚어 햅과일과 함께 올려

## 마늘 등 독특한 냄새 나는 채소 피해야

오른쪽에 식혜) 방식을 따른다.

그러나 각 지방과 집안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형식이나 음식 가지수에 신경 쓰기보다는 형편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차례상은 방위에 관계없이 지내기 편한 곳에 차리면 되는데, 지방(신위)을 모신 곳이 북쪽이며 제주가 상을 바라보았을 때 오른쪽이 동쪽이다. 차례질 때는 기제사에 따르지만 술을 한 번만 붓고 축문은 안 쓰는 경우가 많다.

절을 할 때는 제사와는 반대로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가게 한다.

추석 차례상에는 메(밥) 대신 원래 송편만 올리지만 밥과 송편을 함께 놓

부추, 염교(략교), 생강 등 다섯 가지는 제사에 올리지 않았다. 강한 향취가 나는 것을 올릴 경우 조상신을 모시는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에서다.

생선 이름에 '치' 자가 들어있는 것은 피해야 한다. 조상들은 갈치 등 '치' 자가 들어있는 생선은 너무 흔하기 때문에 차례상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붉은 팥도 금기대상. 붉은 색은 주술적으로 이용해 왔고, 팔 역시 귀신을 쫓는 의미가 있다. 조상을 부르는 차례상에 귀신 쫓는 음식을 놓을 수 없는 일. 그래서 팥을 꼭 쓸 일이 있을 경우 껍질을 벗겨 흰 고물을 내서 썼다고 한다. /김대성기자 bigkim@



### “추석 차례상, 술 대신 차를 씬시다”

명절 차례(茶禮)에 술 대신 차를 쓰자는 캠페인을 벌이는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열린선원에서는 지난달 23일 선원 내 법당에서 '추석명절 차례 시연법회'를 열었다.

열린선원 선원장 법현스님은 추석 차례는 원래 차를 쓰는 것이지만, 술을 쓰는 풍토는 잘못됐다며 1990년대 초반부터 “차례에는 ‘차례’라는 이름에 맞게 차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현스님에 따르면 ‘차례’는 신라 경덕왕 때 스님으로 향가 ‘한가파랑가’를 지은 종당(忠堂)스님이 미륵부처께 차를 올린 데에서 전통이 시작됐다.

제사에 차를 올리는 전통은 그 후 시대와 사상, 종교를 구별하지 않고 계속됐다. 초의선사의 동다송(東茶頌)보다 300여년 앞서 차시(茶詩)를 남긴 조선 초기 한재(寒齋) 이복(李穆·1471~1498)이 조

상께 지낸 제사 율기(芻記·의식의 순서를 적은 글)에서 ‘국을 내리고 차를 올렸다’는 내용이 발견되기도 했다.

법현스님은 “‘제사 혼수하다가는 따위가 제격’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제사는 집집마다 의식이 달라 위해 쓰는 것이나 상 차리기는 자유롭게 하고 집안의 종교적 전통을 따르면 된다”며 “다만, 술 대신 차를 쓰는 것이 차례의 원래 취지와 맞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대호온돌나라 특가전

지금 이 온돌침대 구입 최적기입니다.

■ 온돌침대, 온돌방파, 온돌방울, 온돌방울, 온돌방울

■ 정 수 권중산세계 지하 1층 행사장 ☎ 0552-360-1900

### 대호온돌나라 특가전

지금 이 온돌침대 구입 최적기입니다.

■ 온돌침대, 온돌방파, 온돌방울, 온돌방울, 온돌방울

■ 정 수 권중산세계 지하 1층 행사장 ☎ 0552-360-1900